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무주군, 플래시몹·출범 축하 퍼포먼스 등 참여 축하 행사 가져

무주군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17일 무주군체육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윤정훈 도의원, 남기재 무주경찰서장, 오승주 무주소방서장 등 관내 기관사회단체장을 포함한 주민 3백여 명이 함께 했다.

행사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난타 공연과 퓨전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14개 시군이 출연한 플래시몹 영상 및 특별자치도 출범 홍보영상 상영, 기념식 등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특히 무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댄스팀과 태권도시범단이 어우러지며 연출한 플래시몹 공연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알리는 희망 퍼포먼스와 카드섹션 등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축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제 전라북도의 새로운 이름은 전북특별자치도"라며 "특별자치"라는 혁신과 변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명경제도시로서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의 분야에



무주군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서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게 된 전북자치도에서 우리 무주도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한다"며 "자연특별시 무주발전의 특별한 기회인 만큼 무주다움으로 자연의 가치를 높이고 아름다운 환경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친자연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특별자치도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지

역을 말하는 것으로, 무주군을 포함한 전라북도는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담을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위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을 추진,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26일 공포돼 1년이 경과하는 올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생명경제도시"를 핵심 비전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출범과 함께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산업, 민생특화산업 등의 분야 131개 조항 333개 특례를 부여받게 되면서 지역특화발전의 토대를 다지게 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2024년 마을만들기 사업' 본격 추진에 나섰다. (사진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설명회 모습)

마을공동체 활성화 나선다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센터·마을여행·마을축제 운영

진안군은 '2024년 마을만들기 사업' 본격 추진에 나섰다.

군은 지난 12일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달 26일까지 사업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0여개 지구에서 마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진안군을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기획하여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한다.

군은 2003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0년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단계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주민역량강화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4년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마을은 지난해 마을사업 평가를 통해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 14개소와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26개소 마을로 16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 될 계획이다.

마을사업은 1단계인 그린빌리지 사업을 시작으로 평가를 통해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며 4단계인 자율개발사업 참여 시 최대 4억원까지 마을별 발전

계획 수립이 가능해 주민들의 의지와 협력으로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마을개발 사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군은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농촌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주민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마을사업 현장지원 등을 위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관계인구 확대와 마을 공동소득 창출을 위해 진안군민의 독자적인 마을여행(진안고원 트슨리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특화사업인 '진안군 마을축제'를 17년째 운영하며 올해에도 총 30여 개소의 마을과 기관·단체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관계인구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사업관련 문의는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팀(063-430-8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올해 첫 승마대회 장수군서 열린다

'장수 Winter Championship 승마대회' 18~21일 개최

갑질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2024년 첫 승마대회인 '2024 장수 Winter Championship 승마대회'가 전라북도 말산업특구 대표지역인 장수군에서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다.

장수국제승마장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우수한 시설을 갖춘 실내승마장을 보유하고 있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승마경기 개최가 사계절 가능한 최적의 장소이다.

이에 2022년부터 동절기에도 승마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승마선수 및 말의 경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2024 장수 WINTER Championship 승마대회'는 마장마술, 장애물 30cm~

130cm 및 이벤트 경기인 관승경기과 허들경기 등을 구성하여 미래의 주역인 유소년 승마선수부터 엘리트 승마선수까지 출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회 기간 중 약 150여 명의 말과 선수 및 관계자 500여 명이 장수를 방문하여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겨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회성 이벤트 대회가 아닌 3회에 걸쳐 결승전까지 진행되는 챔피언십으로 개최되어, 겨울철 최고의 승마선수와 말을 선정함과 더불어 지속적인 승마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안전 아동놀이터 개소

진안군은 17일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안전지역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강화를 위한 안전아동놀이터를 개소했다.

이번 아동놀이터 개소는 지난 2017년 제정된 '진안군 아동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아동센터가 없

는 면단위 지역에 돌봄시설로서 아동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실내 돌봄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2017년 부귀 아동놀이터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안전지역은 아동·청소년이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아동·청소년 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으나, 안전아동놀이터 돌봄시설 개소로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20여명의 놀이터 등록 아동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해, 놀이터에 대한 소개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로 소통 나선다

장수군은 갑질년 새해를 맞이하여 19일 계북면을 시작으로 7개 읍·면을 차례로 방문하며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를 실시한다.

이번 대화는 직접 찾아가는 현장 소통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화약진(成和躍進)의 자세로 장수군을 하나로 화합해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를 만들고자 마련했다.

지난해 주요 성과와 2024년 군정방향을 주제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민선8기 3년차 읍·면 순방인 만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간 추진한 공약, 역점사업 등의 현안과

제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으로 군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일정은 △19일 계북면(오전) △23일 장수읍(오전) 계남면(오후) △24일 천천면(오전) 장계면(오후) △25일 산서면(오전) 번안면(오후) 순으로 이어진다.

최후식 군수는 "성공한 정책은 늘 군민과의 소통에 답이 있었다"며 "민생현장을 직접 살펴며 군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듬어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농기계 구입비 50% 지원

무주군이 농촌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작업 편의를 돕기 위해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총사업비 7억 원(일반 농기계 6억 5천만 원, 축산 농기계 5천만 원)을 투입해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경영체 중 25만 원 이상의 농기계 구입 희망 농가가 대상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농기계 보조사업 수혜실적이 없는 농업인을 우선 선정하며 지원 한도는 1대 2천만 원(보조 50%, 자담 50%)이다.

신청 마감은 오는 26일까지(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로 2월에 대상자를 확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0~2세 영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장수군은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영아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1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란 정부와 전북도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학금, 차량운행비 등 부모들이 부담한 실비 성격의 경비이다.

현재 3~5세 유아에게는 도 특수시책사업 운영에 따라 1인당 13만8,000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0~2세 영아는 필요경비를 지원 받지 못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에 장수군은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발빠르게 예산(4,320만 원)을 확보하였고 0~2세아에게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장수군에 주소지를 두고, 장수군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이다. 부모가 해당 어린이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에서 어린이집을 통해 필요경비가 지급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